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승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 이문우 요한 (1810-1840)



이문우는 경기도 이천(利川)의 양반 신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다섯 살 때 부모를 여읜 그는 서울에 사는 오 바르바라라는 여교우에게 입양되어 효심 깊게 자랐다. 다 자라서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고자 하였으나 양모의 뜻에 따라 혼인하였다. 그러다 몇 년 뒤 아내와 두 자녀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혼자 수덕 생활을 하였고, 범 라우렌시오(앵베르) 주교에게 회장으로 임명된 후론 그를 도와 지방을 순회하며 전교에 힘썼다.

1839년 기해박해로 많은 교우가 체포되었을 때, 이문우는 사방에서 금전을 모아 옥에 갇힌 교우들을 돕고 주교와 신부들에게 박해 상황을 보고하였다. 성 앵베르 주교, 성 모방 신부, 성 샤스탕 신부의 순교 후에는 새남터 형장에 버려진 그들의 시신을 모셔 와 노고산에 안장하였다. 결국 그 역시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는데, 이때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나를 부르시니 어찌 그분의 부르심에 대답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며 그들을 재촉해 포청으로 갔다. 포청과 형조에서 모진 고문을 받은 그는 1840년 2월 1일, 당고개에서 2명의 교우와 함께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 그의 나이 31세였다.

성화_이희문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연중 제11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27(26), 7.9 참조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 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제1독서

에제 17, 22-24

화답송

시편 92(91), 2-3, 13-14, 15-16 (◎ 2가 참조)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 주님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아침에는 당신 자애를, 밤에는 당신 진실을 알리나이다. ◎

○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뜰에서 우거지리라. ◎

○ 의인은 늙어서도 열매 맺고, 물이 올라 싱싱하리라. 불의가 없는 나의 반석, 주님이 올곧으심을 널리 알리리라. ◎

제2독서

2코린 5, 6-10

복음 환호송

요한 1, 41. 17 참조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복음

마르 4, 26-34

영성체송

시편 27(26), 4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높고 우뚝한 산



향백나무

오늘의 제1독서 예제 17,22-24에서는, 주님께서 “향백나무의 꼭대기 순”을 따 “높고 우뚝한” 산 위에 심으시면, 헛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히며 그 가지 그늘에 새와 들짐승이 깃들이리라고 전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과 계약의 지키지 않은 죄로 주권을 상실하게 되지만(기원전 6세기), 쫓겨난 채를 치르고서 회개하면 과거보다 더 눈부시게 회복하리라는 희망의 예고였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왕실의 궁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이는 쫓겨난 채를 치르는 과정일 뿐 종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신탁에서는 오히려 이런 징벌과 회복을 통해 세상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뿐 아니라 세상 만민, 곧 “들의 모든 나무”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무력하여 그 백성들이 유배 간 게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향백나무의 꼭대기 순”은 다윗 후손을 상징합니다. 예부터 나무는 왕실과 수장의 상징이었습니다(이사 11,1 등). 1열왕 7,1-3에 따르면, 다윗 왕실은 향백나무로 궁전을 지었기에 향백나무는 왕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예레 22,15). 더 구체적으로 “향백나무의 꼭대기 순”은 제1차 바빌론 유배 때 끌려간 유다 임금 여호야킨을 가리킵니다. 그리하여 그의 후손을 회복시켜 이스라엘의 높고 우뚝한 산 위에 다시 심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고 우뚝한” “이스라엘의 드높은 산”은 예루살렘을 암시합니다(시편 48,2-3; 이사 66,20 등). 예루살렘의 고도는 해발 700-750미터로 이스라엘에서 높은 산지에 속합니다. 이

러한 구원과 회복의 예고를 통해, 하느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계약(2사무 7,16; 23,5)을 잊으신 탓에 재앙이 닥친 게 아님을 또한 알려줍니다(시편 89,21-34).

다만 레바논에서 자라는 침엽수 향백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탁에서는 하느님께서 심으시면 향백나무에도 열매가 맺히는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예고합니다. 이에 대해 옛 유다 전승은 아담과 하와 시대에는 향백나무도 열매를 맺었다고 전합니다. 예제 31,8에 따르면 향백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자란 나무이지만, 원조들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받자(창세 3,17) 생산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입니다(『창세기 랍바』 5,9).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제2의 종살이, 곧 바빌론 유배에서 구하시느 날, 이스라엘 땅은 에덴 동산처럼 풍요로워지고(예제 36,35) 향백나무도 열매를 맺는 기적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향백나무에 새와 들짐승이 깃들이리라는 말씀으로 다윗 왕실의 번영을 예고하는데요, 성경에서 새와 들짐승은 이민족을 상징하는 소재입니다. 시편 104,16-17에서는 주님의 나무들, 레바논의 향백나무들에 새들이 깃들인다는 표현으로 세상 만민에게 퍼져나가는 하느님의 은총을 비유합니다. 세상 곳곳에 스며드는 하느님의 사랑은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시어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시기까지 인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행보에서 실현됩니다. 예루살렘에 자리한 “높고 우뚝한” 시온산에서는 예제키엘서에 예고된 이런 사랑의 역사를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제3장 열린 세계를 구상(構想)하고 싹트게 하기 ④ - 패(牌)들의 세계를 넘어가게 하는 힘, 형제애

회칙 「모든 형제들」은 보편적 사랑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로
서 두 부류의 그릇된 보편주의적 태도를 지적합니다. 하나
는, 겉으로 모든 이를 사랑하고 포용한다면서도, 실제로는
자기가 속한 집단과 국민을 낮추어 보아 그 사회 내부에 일
류 이류 같은 계급을 만들어내고, 더 존엄하고 많은 권리를
누리는 이들과 덜 존엄하고 적은 권리를 누리는 이들을 양
산해내는 보편주의입니다. 이는 결국 사회 내부에서 약자의
자리를 없애려는 태도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
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고안한 권위적이고 추상적인 보편
주의적 태도로서 표면적으로 일치를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획일과 동형(同形)의 세계화를 도모합니다. 이는 각 인간과
국민이 지닌 타고난 재능과 고유함을 부정하고, 전체 세계
의 다양한 색깔과 아름다움, 궁극적으로는 인간적 모습마저
소멸시킵니다. 이 두 가지 그릇된 보편주의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계화를 비판적으로 재고(再考)하게 합니다.

열린 세계를 위한 조건으로 건전한 보편주의 정신과 그 태
도를 소개한 회칙 「모든 형제들」은, 이제 세 번째 조건으로
서 자유와 평등을 함양하는 형제애로 패들의 세계를 넘어
서는(101-105항) 건전한 지역주의(localism)를 제안합니다.
회칙은 오늘날 ‘다른 집단과 차별화하는 독자성(정체성)에
집착하는 사회 집단’이 끊임없이 출현하고 있다고 진단합니

다. 바로 사회적 임무와 신분 그리고 직업 등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한패를 이루는 집단입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이웃’이란 단지 집단의 특정 목적을 위해 일하는 이들, 또는
집단의 특정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파트너들일 뿐입니다. 한
편, 그들은 집단에 위협이 되거나 그 목적과 이해관계에 이
바지하지 않는 사람을 배척하고, 그가 긴급히 도움을 요청
하더라도 없는 사람(nobody)으로 취급합니다. 목적과 이해
관계를 달리하는 집단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태도를 보입니
다. 그러나 형제애(연대)의 힘은 그 패들의 세계를 넘어서게
하며, 더 나아가 집단 안에서 자유와 평등을 증진하여 건전
한 지역주의를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형제애를 의식적으로 계발하지 않는다면, 집
단(지역) 내에서 자유는 그 풍부함을 잃어버리고 평등은 형
식적이고 추상적인 선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곧 대화와
교육, 호혜의 가치들에 대한 인정 같은 정치적 의지로 형제
애를 촉진하지 않는다면, 자유는 결국 자기 마음 내키는 대
로 살아도 되게 하는 도구나, 누구와 관계를 맺고 어느 집
단에 소속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조건쯤으로 위축
될 것입니다. 평등 역시 집단 내 중요한 지체가 아닌 이들에
게 합당한 자리를 내어 주지 않음으로써 결국 실종되고 말
것입니다. 🌀

성모자의 초상화를 그리는 성 루카

밝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15세기 플랑드르 부르주아의 실내가 있습니다. ‘플랑드르’(Flandre)란 오늘날 네덜란드와 벨기에 지역인데, 플랑드르인들은 사물을 금속공예적 섬세함으로 표현했지요. 그림의 주인공은 좌측의 성모자(聖母子)와 맞은편 붉은 옷차림의 성 루카입니다. 성모님은 아기 예수에게 젖을 물리고, 루카는 왼손에 작은 양피지, 오른손에는 은으로 된 필봉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중세 초기의 전승에 따른 것으로, 루카 복음사가는 성모님의 모습을 최초로 그린 이로 전해집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화가들의 수호성인이 되었고, 화가들의 조합은 ‘성 루카 길드’라고 불렸습니다.

화면 중앙에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두 기둥은 좌우 인물들을 돋보이게 하고, 계속해서 풀이 무성한 작은 정원을 지나면, 톱니 모양의 난간에 이르게 됩니다. 난간에는 두 남녀가 있는데, 전경의 성스러운 존재들과 무관한 인물들이 평화로이 흐르는 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모자와 루카와는 무관한 이들이 중앙에 등장한 걸까요? 이 성화를 그린 이는 15세기 플랑드르 미술의 거장 ‘로지에 반 데르 웨이든’(Rogier van der Weyden, 1399/1400-1464)입니다. 원래 1434년경 작품인데, 이 지면에 실린 그림은 로지에의 사후 1500년경 정교하게 모사한 것입니다. 당시 걸작의 모작은 흔했었지요. 이 그림은 말합니다. 이 성스러운 사건은 종결된 게 아니라 바로 동시대인 15세기, 사람들의 일상에서도 일어난다고 말이지요. 이렇게 하여 성모자와 루카 복음사가는 바로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모자가 있는 벽면에는 붉은색과 황금색 문양의 고급스러운 직물이 드리워져 이들이 고귀한 분들이심을 드러냅니다. 이 시기에는 르네상스의 과학적 사고가 도입되어, 중세 때 성스러움을 나타내던 둥근 황금색 ‘후광’이 다른 표현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



로지에 반 데르 웨이든, 〈성모자의 초상화를 그리는 성 루카〉, 1500년경 모작, 목판에 유채, 133x107cm, 브뤼헤 그로닝겐 미술관(벨기에)

모님이 앉아계신 곳은 황금색 휘장이 드리워진 옥좌가 아니라, 그 아래 발을 올려놓는 받침대입니다. 이는 성모님의 ‘겸손’을 드러냅니다. 그분의 얼굴 역시 현실에서 마주칠 법한 정겨운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시골 아낙네처럼 붉게 상기된 양 볼은 미화되지 않아 더욱 친근하고 진실하게 다가옵니다.

성모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특이합니다. 귀엽거나 사랑스럽지 않고, 이상하게 깡마르고 기형적으로 뒤틀린 모습입니다. 이는 성모님과 루카의 평화로운 모습과 대조되어 더 충격적인데, 훗날 겪게 될 수난과 희생을 암시합니다. 성인의 기품이 느껴지는 진지한 모습의 루카, 입가에 은은한 미소를 짓고 아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성모님, ‘구원을 위한 희생’을 암시하는 아기 예수님 그리고 테라스의 이름 모를 남녀, 이들은 성화를 감상하는 우리를 성스러우면서도 친근한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끝으로, 화면 상단에는 둥근 창이 수직과 수평의 대들보로 나뉘어 ‘삼위일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성화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 아래 펼쳐진 은혜로운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



교구 소식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

일시 6/25(화) 10:30 묵주기도, 11시 미사 장소 참회와 속죄의 성당
주례 손희송 주교, 의정부교구 사제단 공동집전
주관 031-941-6238 민족화해위원회

최대한 신부와 함께하는 청년 인문학 피정

일시 7/6(토) 15시 ~ 7(주일) 13시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주제 현대를 사는 젊은 신앙인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
교재 다미앵 클레르제-귀르노, 「무기력한 날엔 아리스토텔레스」, 자음과모음, 2018
대상 20~30대 회비 6만원 (교재 미포함)
문의 031-850-1446 선교사목국

신청 ▶



고3·일반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7/7(주일) 13:30 장소 의정부교구청 5층 경당

[가정사목부] 가톨릭 성교육 - 한국틴스타워크숍(서울)

일시 6/22~7/13, 매주(토) 09:30~17시 장소 명동 영성센터 (명동대성당)
대상 가톨릭 성교육에 관심있는 부모, 청년 회비 18만원
문의 010-6651-2359 한국틴스타 사무국
031-850-1448 가정사목부
※ 의정부교구 신자 50% 지원 [선착순 15명]

신청 ▶



2024년 신입교리교사학교 동반자 추가 모집

대상 신입교리교사학교를 수료한 1년 이상 경력의 어린이·청소년부 교리교사 (현·퇴임 교리교사 모두 가능)
인원 50명 접수 6/19(수)까지
문의 031-850-1458 청소년사목국 ※ 자세한 내용은 본당에서 공문 참조



의정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된 분은 6/21(금)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표승호 문의 031-850-1507 (주말, 공휴일 휴무)

2024 청년 DMZ 평화의 길

날짜 6/29(토)~30(주일) [1박 2일] 장소 파주-연천 (JSA성당 방문 포함)
회비 6만원 / 선착순 80명 문의 031-941-2766, www.pu2046.kr 민족화해센터





미사 · 피정 ▶▶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일 기도회

일시: 6/21(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봉헌 준비

강사: 윤민재 신부(수원교구 안산 성요셉 성당)

문의: 010-2127-0032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1일 피정

일시: 6/24(월) 09:20~16시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대성전

주제: 파티마, 복음의 메아리, 자비의 표징

강사: 이선영 안나 수녀(티엠티 마리아 성심수녀회)

준비물: 미사준비 및 개인 텀블러

문의: 010-6303-8515

영성의 책꽂이 - 서강대학교

일시: 6/17(월) 14시~16시 (강의와 미사)

장소: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소강당

주제: 새롭게 상상하는 이나시오 양심 성찰

강사: 심종혁 신부 (예수회)

문의: 02-705-4711 [무료]

가정회복은혜의 낮피정 - 고해성사,상당

일시: 6/17(월) 13시~16:30 (말씀, 찬양)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1,2호선 시청역)

문의: 010-7282-2422, 010-5245-0121

성 도미니코 선교수녀회 피정

하느님, 바람, 나(힐링피정): 7/5(금)~7(주일)

효소단식: 7/11(목)~14(주일), 8/9(금)~12(월)

성경완독: 7/26(금)~8/3(토), 8/23(금)~31(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집

제4차 Jesus 시그널 피정 - ICPE 선교회

대상: 가톨릭 미혼 청년 (만35~45세)

일시: 7/6(토)~7(주일) / 장소: 성 앵베르센터

문의: 010-9271-9114, ICPE 카톨릭친

예수회 이나시오 영신수련 피정

침묵피정 [4박5일]

7/26(금)~30(화), 8/6(화)~10(토)

일상생활 속의 영신수련 [주1회]

8/26~12/26, 매주(월) 13:30~15:30

장소: 예수회 센터

문의: 02-3276-7794

꽃동네 성소자를 위한 “행복”피정

[나는 행복합니다]

일시: 7/6(토) 13시 ~ 7(주일) 16시

장소: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대상: 고2~35세 젊은이

회비: 5만원 (1인실)

문의: 010-4468-5628 형제회

010-4830-2820 자매회 [사전예약요망]

6월 고양-파주 평화지기 월례미사

일시: 6/18(화) 20시 [매월 셋째(화)]

장소: 백석동 성당 2층 대성전

대상: 평화사도, 민족화해분과장·위원,

평화와 환경 보존에 관심있는 교우 누구나

제주면형의집 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생태순례: 7/19(금)~21(주일), 9/1(주일)~3(화)

우도포함: 7/25(목)~28(주일), 8/2(금)~5(월)

8/8(목)~10(토), 8/14(수)~17(토)

추라도포함: 9/7(토)~10(화)

문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우도해변포함: 7/12(금)~14(주일)

7/20(토)~22(월), 7/25(목)~28(주일)

8/1(목)~4(주일), 8/6(화)~8(목)

8/13(토)~16(화), 8/24(토)~26(월)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디비나 입문 피정

날짜: 8/1(목)~4(주일)

장소: 성 베네딕도 문화영성센터(왜관 수도원 내)

회비: 38만원 (1인실) / 지도: 허성준 신부 외

문의: 010-8599-3127 한 름타

성심수녀회 여름청년 침묵피정

일시: 7/19(금) 20시 ~ 21(주일) 13시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

주제: “저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대상: 청년 남녀 누구나

회비: 65,000원

문의: 010-9099-2337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집 피정

개방의날 무료피정: 7/5, 매월 첫(금) 10시~15:30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대침묵피정: 6/21(금)~23(주일)

다네이영성수련피정: 8/22(목)~25(주일)

문의: 02-990-1004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 집



교육 · 모집 ▶▶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특강 <중독과 영성> - 전진상 영성센터

일시: 7/9(화)~10(수), 10시~13시 [2일]

장소: 명동 전진상 영성센터 / 회비: 6만원

강사: 홍성민 신부

문의: 02-726-0700, 010-9726-0136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활동: 주일 16시 및 대축일 미사 등

대상: 20~30대 가톨릭 신자

오디션 : 6/23(주일) 17시, 명동대성당

※ 로고스 홈페이지 입단문의 참조

어머니·아버지학교 온라인(ZOOM) 교육

일시: 6/28~7/19, 매주(금) 19:30~21:30 [4주]

주제: 자녀에게 신앙 이어주기 / 회비: 4만원

강사: 조재연 신부, 천진아, 이세라

주관: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햇살사목센터

문의: 02-744-0840 [6/23(주일)까지 접수]

가톨릭대 문화영성대학원 후기 2차 신입생 모집

모집: 문화영성학과 (석사과정)

전공: 문화영성, 사목영성

접수: 6/17(월)~7/7(주일), 면접: 7/19(금)

장소: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서울 반포)

문의: 02-3147-8787, http://gcs.catholic.ac.kr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하계 수영장근무자 모집

채용: 인명구조원, 인명구조원 보조, 간호사(조무사)

접수: 6/28(금)까지, service@hanmaum84.com

문의: 031-840-0018 활동운영팀

※ 자세한 사항은 hanmaum84.com 참조

성 소 모 입	수도회명	대상	장소	문 의
	마리아의작은자매회	만 40세 이하 여성	서울 후암동 (서울역 근처)	010-5690-1099 (수시 가능)
	한국순교복자발마수녀회	만 45세 이하 독신여성 (예외 상담가능)		010-3355-4997, 010-8669-6383

성가발성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띠나 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산(토) 18시
문의: 010-9842-88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여름캠프 보조지도자 모집

업무: 어린이신앙캠프 보조 진행
문의: 031-840-0018 활동운영팀
※ 자세한 사항은 hanmaum84.com 참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해밀 직원채용

분야: 생활재활교사(여) ○명 (채용시까지)
자격: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문의: 031-965-0028 해밀
※ 자세한 사항은 www.haemil.or.kr 참조

안내 · 기타 ▶▶
한티 가는 길

날짜: 9/25(수)~27(금), 11/25(월)~27(수)
장소: 문화영성센터
강사: 류지영 에프렘 수사
내용: 한티가는 길 도보순례
문의: 010-6791-0071

꼬메스심리상담소 - 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주1회]
상담자: 010-3201-0520 노경덕 신부

(소규모 양로원) 우양의 집 물품 판매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운영 양로원 기금
가격: 청국장(500g) 1만원, 연잎밥 1만원 (택배 가능)
문의: 031-943-2120, 010-9271-4694

2024 가톨릭 뮤직 캠프

가톨릭성가를 통한 발성 집중 레슨 캠프
날짜: 8/23(금) 17시 ~ 24(토) [1박2일]
장소: 파주 민족화해센터 / 회비: 15만원
과목: 여성, 남성, 기초발성반 / 선착순 50명
주관: 모니카교회음악원
문의: 010-5245-2848 심준보 베드로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하늘의문 성당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라파엘 가을특선 성지순례안내

9/11(수) 추석특선 알프스와 중세수도원 (545만원)
9/16(월) 튀르키예, 그리스 (10일, 409만원)
(동반자 100만원 할인)
9/23(월) 다낭 성지순례 (5일, 155만원)
10/13(주일) 성모님 3대 발현지 (13일, 485만원)
10/22(화) 이탈리아 일주 (10일, 520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 도쿄, 교토
3박 4일, 120만원 / 문의: 010-3645-9028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8/6(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45만원)
9/26(목) 조지아, 아르메니아(초기교회) (10일, 440만원)
10/9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70만원)
10/22(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11/4(월) 알프스 수도원 및 성모성지 (12일, 53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8/19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2일, 525만원)
9/24 이탈리아 일주 (11일, 545만원)
(동반자 50만원 할인)
10/7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3일)
10/14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75만원)
10/23 발칸3개국 메주고리에 (12일)
11/21 멕시코 과달루페 (10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도/서/소/개

하느님의 무한한 은총 속에서 사는 법

칠성사, 믿음의 문을 열다

손희송 | 224면 | 13,000원 | 생활성서
문의 | 02-945-3300

신앙생활의 방법을 알려주는 책

우리 모두는 살면서 출생, 성장, 굶주림, 병고, 혼인, 소명, 죽음 등을 겪으면 살게 된다. 칠성사는 이렇듯 일상과 더불어 중대한 순간순간마다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손길을 보다 깊이 느끼도록 한다. 이 책을 통해 그동안 놓치고 있던 성사생활의 기쁨을 되찾아 하느님과의 올바른 만남을 갖고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칠성사 믿음의 문을 열다』는 우리 인생의 굵이굵이마다 깊이 개입하시어 사랑의 은총을 하나씩 풀어내시는 하느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게 해 주고, 지식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을 통하여 자신과 이웃과 하느님을 사랑하게 해 주기에 충분한 몫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하고 유익한 책이다.

자비송 (Kyrie)

우리는 미사 시작 부분에 참회 예절을 거행합니다. '구원의 신비'인 성찬례를 거행하기 전, 먼저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고백 기도와 함께 바치는 기도가 바로 '자비송'입니다. 자비송은 그리스어 [키리에 엘레이손] (Kyrie eleison)을 번역한 것으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호소하는 청원 기도입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마르 10,47)라고 부르짖었던 눈먼 바르티메오의 외침과 연관됩니다.

본래 자비송은 4세기 중엽 안티오키아-예루살렘 전례에서 바쳐지던 부제의 선창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주례자가 하느님 앞에서 공동체를 대표해 '본기도'(Collecta)를 드리기 전, 공동체의 청원 기도가 바쳐졌는데 이에 신자들은 한목소리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응답했던 것입니다. 이는 5세기 말 서방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교황 젤라시오 1세(492-496년 재위) 때의 기록을 보면, 자비송 전에 청원 기도가 바쳐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감사기도 중에 다른 청원 내용이 들어가고 '보편 지향 기도'(Oratio universalis)도 발전함에 따라 자비송 앞에 바쳐지던 청원 구절이 사라지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구절은 그레고리오 대 교황(590-604년 재위) 때 삽입되었습니다.

[키리에] (Kyrie, Kyrios의 호격)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말입니다. 본래 [키리오스] (Kyrios)는 하느님의 이름인 '야훼'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호칭을 부활하신 예수님께도 사용함으로써 성자를 성부와 동등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이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주님이시라는 고백과 찬미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자비를 베푸소서."(eleison)라는 호소를 통해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용서와 자비를 간청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사제는 참회 예절을 시작하면서 신자들에게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라고 권고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인간적 잘못에 대해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라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적 잘못으로 내가 어떻게 하느님에게서 멀어졌고, 어떻게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돌아보라는 초대입니다.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에 상처를 입으신 주님의 마음을 특별히 생각하는 예수 성심 성월을 보내며 자비송에 담긴 신앙고백과 회개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기고 정성스럽게 기도 바치도록 합시다. ☸